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및 1308 상담전화 안내문

작년 6월 수원역의 냉장고에서 사망한 영아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출생신고하지 않은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와 같은 날 시행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가 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논의될 당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이런 일부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아동의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것 뿐 아니라, 공적 자원을 투입하여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보다는 어떤 환경의 부모라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이 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들이 비밀 상담을 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상담교사·보건교사, 대학교 상담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가족센터, 병원, 약국 등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임산부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물 비치와 부탁드리고, 종사자 분들께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와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안내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1.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가까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주시거나, ▲위기임산부가 1308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1308 전화번호는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됩니다.

2.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물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9/3425)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02-6452-8642/864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붙임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연락처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구분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상담기관	서울특별시	애란원	02-393-4726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대구광역시	가톨릭푸터	053-764-8537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032-772-2071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062-655-1308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042-934-6934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052-903-9200
	경기도	광명 아우름	1600-0152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033-263-6273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충청남도	구세군 아름다리	041-568-0695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063-853-9616
	전라남도	성모의 집	061-279-8004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이스	054-455-1391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제주특별자치도	애서원	064-773-2010